

연기조사 도뒹던 띠집에는...



(3)

지리산 ②

지리산을 한 미디로 표현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깨달음의 산'이나 '어머니 산'이나 하는 말들도 턱없이 작은 조각 그림에 지나지 않는다. 어쩌면, 보면 볼수록 '모름' 뿐이라는 성글기 짝이없는 표현이 아닐로 지리산의 실체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실사 빼어난 문장가가 못사람들이 탄복할 근사한 표현을 찾았다 할지라도, 그런 그 사람의 머릿속에 그려진 '허공꽃'이 오순간의 느낌일 뿐이다.

하여 나는, '멀리고 달함이 함으로 자재로운 산'이라는 말로 지리산이 드리운 그림자 하나를 붙잡아 본다. 한 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순간순간 변하는 그 모습 그대로가 지리산의 실체인 까닭이다. 벽공으로 우뚝 솟으면 솟은 대로, 구름에 갈하면 갈한 대로, 아득에 물하면 물한 그대로 지리산일 따름이다. 이 모습이 더 좋고, 저 모습은 덜 좋다는 생각은 오로지 나그네의 심사일 뿐이다.

지리산의 심장은 반야봉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산새와 다람쥐와 이웃하고 사는 한 반야 행자가 살고 있는 토굴이 있다. 묘향대가 바로 그곳이다. 화엄사를 창건한 연기 조사가 파집을 짓고 도를 닦았다는 곳이기도 하다. 내가 가 본 곳 중 가장 아늑하고 깊은 곳이었다. 만약 지리산이란 그루 나무라면 그 나뭇잎의 중심이 바로 이곳이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 본다.

"스님!" 하고 조금은 과장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이런 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하도 신기해서였다. 그러나 스님은 할름 돌아보기도 하지 않았다. 산을 넘어 지친 구름 한 조각쯤으로 생각할 걸까?

달감으로 슬 나무를 자르고 있었다. 이미 반쯤은 썩은 나무였다. 이것저것 귀동냥이나 할 셈으로 슬그머니 다가가 한 토막 거들었다 하자, 무심히 풀을 건넌 뿐 또 아무런 말이 없었다. 한참의 시간이 툭박으로 쌓인 다음, 나 또한 무심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혼자 사십니까?"

참 한심한 질문이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대답이 돌아온다.

"여럿이 함께 살지요."

"예?"

"새도 함께 살고 다람쥐도 드나드니 제법 많은 식구인 셈이지요."

"아, 예."

"언제부터 사셨나요?"

"글쎄요. 잊어버렸네요."



○운해에 빠진 반야봉.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진공묘유(眞空妙有)의 도리를 일러준다.

묘향대 토굴 스님은 세월 잊어버리고 반야봉은 진공묘유·평등 도리 일깨워

순간, 아찔한 느낌과 함께 한 생각이 스친다. '그래, 바로 이런 것이 수행자의 삶이요, 영원한 오늘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최고의 법문이었다. 세상 정색을 하고 얼굴을 바라보았다. 20대 초반? 아니, 40대 중반?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잊어버렸다는 말이 정말인 것 같았다.

큰담 먹지 않으면 묘향대를 가기는 힘들다.

구경 삼아 갈 양이면 삼가고 삼갈 일이다. 수행을 방해하는 부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기도 하니까. 그러나 꼭 가야할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걸림 게 없다. 화개재를 지나 노고단쪽을 향하다 반야봉으로 올라서는 갈림길에서 반야봉의 동쪽쪽 기슭에 몸을 맡기면 된다. 인적이 끊어진 지 오래라 같은 아주 희미하다. 수풀을 헤집으며 들짐승들의 발걸음 좇을 일이다.

리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어느 하나에도 차별을 두지 않는, 부처님 가르침의 그 광대한 도리를 반야봉은 말없이 가르치는 것이다.

진공묘유(眞空妙有), 텅 비어 있음! 우주의 존재 방식이다. 반야봉도 그렇게 존재한다. 그 높음은 결코 낮음을 상대한 높음이 아니며,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 모습은 세계의 실상이 공(空)임을 여실히 보여 준다. 그리하여 색(色)이나 곧 묘유(妙有)다.

반야봉에서 노고단까지의 발걸음은 그다지 힘들지 않다. 천왕봉을 오를 때와 같은 가팔진 곳도 없다. 이 물이 곧 작은 우주임을 느끼며 천천히 걸기만 하면 저기, 노고단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약 운해를 만난다면, 그 또한 지리산이 내린 축복이다.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평등함을 던질 일이다.

글=윤재학(본사 여시아문 출판부장)
사진=손재식(사진가)



○연기조사 도뒹던 곳으로 지리산에서 가장 깊고 아늑한 곳 묘향대의 토굴. 반야봉 아래에 있다.

묘향대를 뒤로 하고 쉬엄쉬엄 올라도 한 시간이면 반야봉에 오를 수 있다. 지리산의 봉우리 중 전망이 가장 좋은 곳으로 손꼽힌다. 사방이 탁 트여 있어, 천왕봉 노고단은 물론 백두대간의 지리산 구간 북쪽 끝머리인 만복대까지 눈길로 쓰다듬을 수 있다. 이곳에 서서 하늘에 머리를 닿으면, 재아무리 굳은살 같은 감성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몸과 마음이 하늘빛으로 투명해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조금은 아늑해도 반야봉은 지리산의 주봉에서 살짝 비껴나 있다. 지리산의 가운데에 있으면서도 살갓이 풀려나 있는 것이다. 백두대간의 마루금이 지나지 않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나는 이곳에서 반야의 함꼐를 배웠다.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는 중도의 도리와, 나아갈과 물러섬이 둘 아닌 도리를 배웠다. 나와 너의 있음이 서로로부터 비롯되고 서로에 속해 있음을 배웠다. 어디에도 걸

지리산의 사찰들

사찰	창건주	창건연도	문화재
법계사	연기 조사	544년	법계사삼층석탑(보물 제 473호)
대원사	아도	500년(무령왕3년)	국락전(전남 유형문화재 제67호) 관음국사부도(전남 유형문화재 제35호)
백송사		신라말~고려초로 추정	삼층석탑(보물 제474호)
실상사	총각	828년(공덕왕3년)	백암암3층석탑(국보 제10호) 실상사부도(보물 제36호) 석등(보물 제35호) 절재래래좌상(보물 제41호)
현운사	덕운(인도 승려)	828년(공덕왕3년)	나옹화상일련(전남 유형문화재 제29호)
회암사	연기 조사	통일신라시대	각황전일 석등(국보 제12호) 화엄사 4사자석탑(국보 제35호) 각황전(국보 제67호) 회암사 대웅전(보물 제299호) 오층석탑(동·서, 보물 제132, 133호)
연곡사	연기 조사	통일신라시대	동부도(국보 제153호) 서부도(보물 제154호) 북부도(국보 제54호) 연각산사암비(보물 제152호)
봉계사	삼법(三法)	723년(성덕왕 23년)	진감국사대공탑비(국보 제47호) 진감국사부도(보물 제380호)

참고사
①신라 신문왕 때 지리산 옥부선인이 부는 피리소리를 들은 일곱 명의 왕자가 입산하여 6년 만에 도를 깨달고 창건했다는 설과 ②103년(파사왕21년) 8월 보름에 가락국 수로왕의 일곱 왕자가 옥보 선사를 따라 출가하여 6년 만에 깨달아 창건했다는 설이 전한다.

● 특허출원 제99-11447호 ●

傳統黃土房

지정황토침대

"지정황토침대"
한 물자가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황토침대"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황토침대의 효능과 가치를 평가 하십시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온화함을 느낄 수 있는 황토 천연적으로 만든 지정황토침대에서 휴의 기(氣)를 직접 체험해 보세요. 지정황토침대는 온도조절이 가능하여 절절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순수황토와 즉, 스프링무늬 등을 혼합하여 만든 제품으로 건강은 물론 자연의 향이 더없이 상쾌함을 주며 황토침대에서 아무것도 팔지 않고 잘 수 있는 특성과 전자파와 수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정SILVER황토침대 싱글 *규격 190X96X33

침대에 황금꽃자리를 매치하여 더욱 시원한 모습의 지정황토침대 *규격 190X131X39

주요생산품목

- 황토주텍건설
- 황토타일
- 황토침대
- 황토벽돌
- 방바닥 및 벽마감시공 (등록업체)

자인과 인간 + 휴과 인간 = 건강한 내일

(주)지정 황토산업

전국대리점 및 영업사원모집

사무실 : (032)427-7898~9, 427-8080
공 장 : (032)697-2365~6
팩스 (032)427-7997 / PCS (016)360-2236

"흙은 만물의 모체다" 황토에는 병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데... (동의보감참조)
(주)지정산업에서 개발한 황토방이나 황토침대는 열처리된 전혀 하지 않은 순수황토에 식물성을 첨가하여 자연적으로 만든 획기적인 제품으로 인체에 유익함은 물론 독특한 향기까지 맛볼 수 있으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을 황토방으로 개조하여 도배나 장판을 깔지 않고 흙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수 있도록 시공합니다.